

디지털 사회의 방향상실

(성대신문 2000.11.20, 고영만)

수년 전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적 변화의 성격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이 변화는 교란의 소용돌이처럼 다가오고 있다. 전통적 구조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구조가 머뭇거리며 형성되거나 점진적 진화 형태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변혁이 이루어진다. 이 변화는 극적이고 급진적이며 또한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료파르(Jean Francois Lyotard) 와 바우만(Zygmunt Bauman) 같은 학자들은 변화의 급진성을 나타내기 위해 “포스트모던”이라 부르고 있으며, 기든스(Anthony Giddens)와 벡(Ulrich Beck) 같은 이는 이 현상들을 “제이차 근대성”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을 선호하고 있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내가 다녔던 70년대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머리모양이나 색깔과 같은 외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스타일, 사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다르다. 대학생만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위의 환경도 그때와는 매우 다르다. 수많은 종류의 스포츠, 동시다발적인 유행, 베토벤-재즈-나훈아-김건모-서태지-립싱커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의해 시공의 경계를 넘는 확산.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전통이 대체적으로 구속력을 상실하고 또 사회의 주류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 집단이 평가절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문화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갖는 방향상실성은 몇 가지의 뚜렷한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전통주의자 모형이 있다. 스포츠는 축구나 야구, 음악은 베토벤 그리고 중간적인 현대예술과 같은 보다 대중적인 것을 취하는 모형이다. 그 자신을 붙들며 뭘 무엇인가를 찾아 집착하는 폐쇄주의자 모형도 있다. 취미, 매니아, 수집, 동아리 등에 집착하여 심한 경우에는 수업보다 동아리 활동을 더 우선으로 삼는다. 폐쇄주의 모형과 유사하지만 어떤 목표 추구를 위해 하나의 방향에 집중하는 속죄주의자 모형은 종교, 이데올로기, 학생회 활동에 열심이다. 비디오, 오락, 심한 경우 마약 등을 통해 스스로를 환상적으로 휘감으면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도피주의자 모형이 있는가 하면, 유일하고 최선의 방향은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방향을 비난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냉소주의자 모형도 보인다.

최소한 데카르트 이후 경험조사, 실증주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 인식 모델은 근대 과학의 지배적 모델이었다. 다른 형태의 인식과 경험들은 매우 제한된 (주관적) 영역에서만 수용되었으며 덜 중요한 이차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약 20여년 전부터 이 세상에는 상이한 인식 모델들이 있고 또 상이한 영역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것들도 합리적 인식과 동등한 것임을 점점 더 많

은 사람들이 믿게되었다.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과학이건 아니건 그것이 작동을 한다면 무엇이든 괜찮다(anything goes if it works - science or not)라는 의미의 수용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지니는 고민과 방향상실은 사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작동을 하고있고 또 그래서 그것들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변화된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상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시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집단 또한 대학생이다. 얼마 전 한국방송진흥원에서 실시한 대학생 비디오영상 페스티벌에서는 “16층... 디지털 속의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단체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영화에 대해 대학생 제작진들은 “디지털이 가져다 준 편안함에 만 빠져서 잃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하였다. 대학생다운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